ROUTES 4

노선도 11월호
The November Issue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8 SEP — 21 NOV 2021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노선도』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등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노선도』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행되며 유통망에 참여하는 참여 거점에 독점적으로 배포됩니다.

www.mediacityseoul.kr
@seoulmediacitybiennale
#비엔날레유통망
#하루하루_탈출한다
#One_Escape_at_a_Time

표지 이미지: 강상우, 〈Forest Neighbor〉 스틸이미지, 2021.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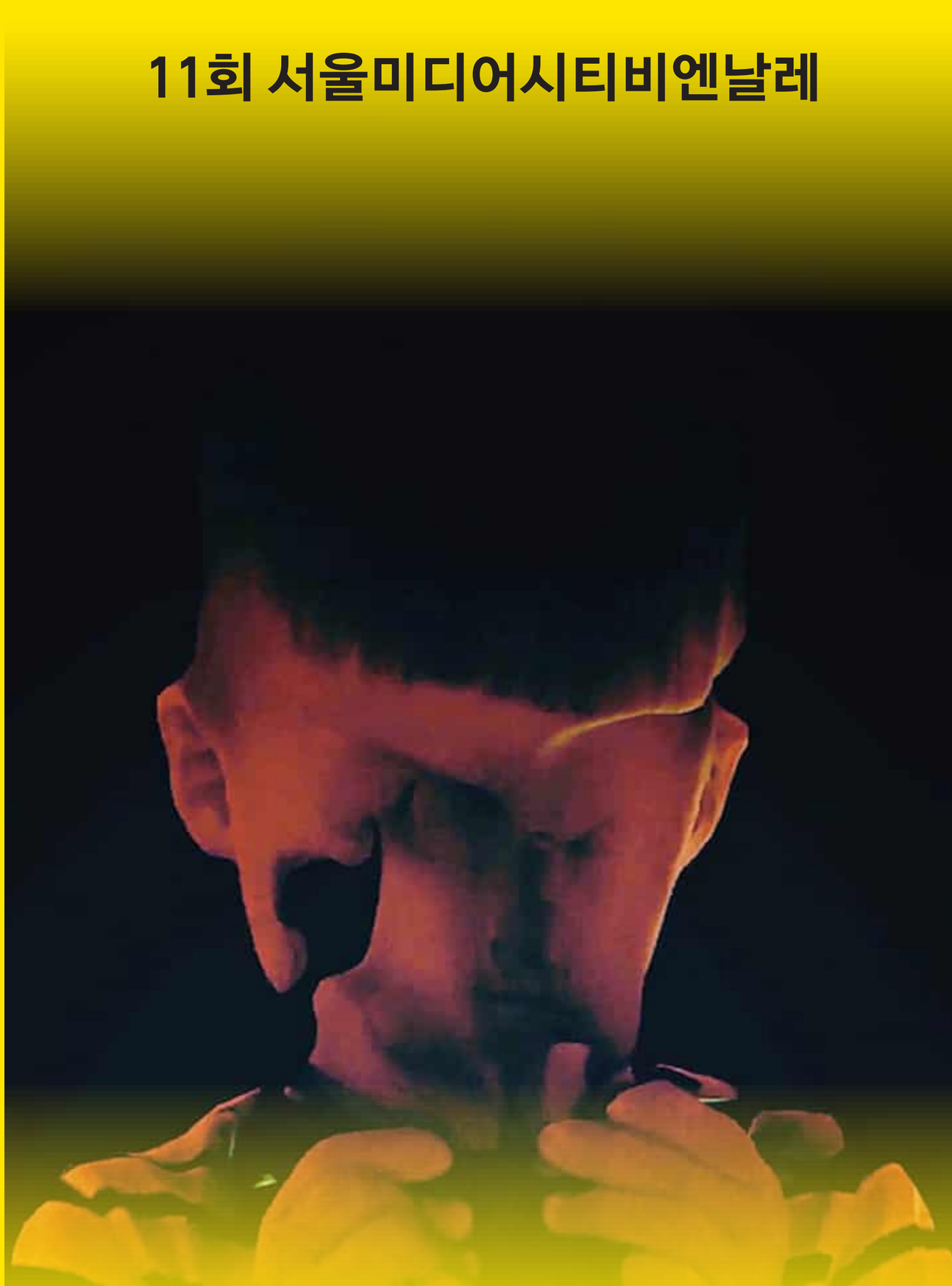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입니다. 2000년 제1회 행사 이래로,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미디어, 도시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해왔습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하에 도피주의를 다시 생각합니다.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는 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내가 사는 세계와 만나고,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도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하루하루 탈출한다》의 본 전시는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전시 개막 전인 8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선보입니다.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 스틸이미지, 2020. 작가 제공.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프로그램

전시가 개막하고 난 다음 날, 비엔날레 사무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 주에 있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진입로〉라는 전시 투어로부터 시작했다. 전시 기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비엔날레를 소개하는 〈진입로〉는 비엔날레 팀원들이 각기 다른 작가와 작품, 장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본래 점심시간에 미술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런치 토크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실시간 채널이 꾸려졌다. 팀원들은 일일 리포터처럼 작품 앞에 다가가 가이드북으로만은 알 수 없는 '관계자'의 증언을 전했다.

퍼포먼스는 이제까지 미술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를 가장 많이 받은 장르가 되었다.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록으로 남고, 지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생생함을 상실한다. 작가들은 다양한 우회로를 모색했다. 당장 개막일이 있었던 주의 토요일, 참여작가 무니라 알 카디리는 〈여성화한 파라오〉라는 제목의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전염병만이 아니라도 소속감을 잃어가는 세태 안에서 우리에게 타인과의 접촉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무니라 알 카디리, 퍼포먼스 〈여성화한 파라오〉. 작가 제공.

초국적이고 퀴어 친화적인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스웨덴 케이팝' 보이밴드를 자임하는 참여작가팀 C-U-T 역시 데뷔곡이자 출품작인 〈KALEIDOSCOPE〉에 대한 퍼포먼스를 자신들의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뒤, 상영과 인터뷰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퍼포먼스의 형식 대신 퍼포먼스로 전파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주력했다. 하지만 어떤 작가들은 온라인 방송에 익숙해진 오늘날, 생생함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생생함으로 재해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생중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의 멤버 존 맥컬리는 〈판타지 공원〉이라는 제목으로 캐나다의 야생동물 보호지구 안으로 들어가 온라인 관객들과 함께 식민주의와 자연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또 다른 멤버인 에이미 램은 실제로 자신에게 쿠키 몬스터의 통역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며 누군가 던진 "농담"을 전유하여 〈쿠키 몬스터 통역사〉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 퍼포먼스를 펼친다. 주목할만한 점은,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또 벌어질 시간이 각기 오전 4시와 오전 6시라는 점. 이는 생생함을 대체하고 있는 실시간이 세계화와 만났을 때의 부스스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존 맥컬리(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퍼포먼스 〈판타지 공원〉. 작가 제공.

에이미 램(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과 올리버 후세인, 퍼포먼스 〈쿠키 몬스터 통역사〉. 작가 제공.

현장의 퍼포먼스가 가지는 생생함을 끝까지 고수하는 작가도 있다. 싱어송라이터 아마츄어증폭기는 사전 공지 없이 을지로 어딘가에서 세 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모든 만남이 자꾸만 픽셀화되어가는 오늘날에 돈키호테처럼 정면으로 맞서며 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모습은 여전히 유효한 퍼포먼스의 현장성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토크와 라운드테이블 등, 참여작가들과 함께 하는 대화 프로그램들은 팬데믹 사회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특히 브리스 델스페제와 같은 해외작가들과의 토크에서는 전시장 1층과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바디 더블〉 시리즈를 관통하는 개념, 더블링(doubling)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참여작가 홍진훤과 김민 그리고 홍진훤과 장해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모두 오늘날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생태계의 권력 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 그리고 팬데믹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합정지구 온라인 토크 장면.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합정지구의 라운드테이블은 7년간 예술공간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이 선보인 프로젝트 〈사사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처럼 사사로운 영역과 함께하는 영역 양자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2020년부터 〈피드백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배움의 장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아이디어 스케치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를 출판으로까지 이어나갔던 학생들은 올해 도심 여러 곳에서 구상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라운드테이블의 형식으로 후일담을 나눈다. 우리가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고민할지언정, 오늘도 전시장 안팎으로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

10월에 네 차례 열렸던 강연 프로그램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혹은 〈대중미디어 이드〉라는 제목처럼, 미디어 앞에서 대중미디어의 도피주의와 새로운 역량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첫 강연은 디제잉 기획자 복길과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가 대중문화산업의 명암을 함께 짚어봄과 동시에 DJ GCM의 디제잉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후 소설가 김보영와 함께 SF 소설의 허구적 세계가 세계로부터의 소외를 어떻게 해갈하는지, 심혜경 교수의 강의를 통해 미디어 속 예능프로그램이 쾌락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내 최초 퀴어가족 시트콤 〈으랏파파〉를 연출한 김일란 감독과 다큐멘터리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미디어 콘텐츠로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노리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다. 100석 넘는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강당은 강연자와 모더레이터의 무대로 탈바꿈하고, 토크에 더욱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중미디어 가이드 〈대중음악 산업과 팬덤 문화: 케이팝 네이티브〉 중 DJ GCM의 디제잉 장면.
글림워커픽처스 제공.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시가 열리는 동안 주말마다 비엔날레 사무실 옆 강의실이 소란스러울 거라 상상했었다.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오갈 테니 말이다. 비엔날레는 두 가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SF 소설가들과 함께 짧은 SF 소설을 씀으로써 여러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워크숍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가와 함께 어린이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비엔날레를 보고 또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글을 쓰는 일은 홀로 하는 일이지만, 쓰기를 위해 함께 보고 읽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글의 장르가 SF로 선택한 것은 참여자들이 펼칠 수 있는 상상력의 폭을 최대한 넓혀보자는 의도이기도 했지만, 넓힌 폭만큼 탈출하고 싶은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모이는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린이 워크숍은 원래 어린이 참여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미술관을 방문하여 미술관을 공작소이자 놀이터이자 비밀기지로 놀아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두 차례는 참여자들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미리 보낸 만들기 키트를 가지고 공작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이 단지 오프라인의 대체물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한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어색해하지 않았다. 어린이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자마자 음소거로 설정하고 화면을 켜둔 뒤 워크숍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SF 글쓰기가 처음인 사람들은 비대면인 상황에서 조금 더 쑥스러움을 감내하고 자신의 글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인지 거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원고를 제출했다. 아울러 마지막 워크숍만큼은 미술관에서 진행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만 보았던 강사와 참여자들을 현실에서 만나는 첫 시간은 제법 SF적이기도 했다.

전시가 종료되는 주까지 비엔날레 사무실은 분주할 계획이다. 그 주에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날 예정이니까.

글_이문석

이유에스플러스건축과의 어린이 워크숍 〈미술관 속으로 탈출하기〉 현장 전경. 스튜디오 S2 제공.

이야기들

이야기들은 워크숍 〈SF 글쓰기로 탈출하기〉의 참여자들이 작성한 여덟 편의 원고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라, 이종산, 전삼혜 세 명의 소설가들의 강의와 합평으로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워크숍의 결과물인 각 이야기의 말미에는 비엔날레 출품작 이미지를 하나씩 두었다.
각 이미지는 참여자가 쓴 SF 이야기의 서사나 구조, 주제 의식 등과 연결지점이 있거나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작품들로 배치했다.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은 각자 도피주의의 문학적 상상력을 제안하고, 전시가 이 제안에 하나하나 응답해가는 형식으로 네 번째 『노선도』는 구성된다.

〈시간의 목뼈〉에는 틱 장애로 반복 행동을 할 때 짧은 시간을 되돌리는 초자연적이면서 불가역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소개한다. 제어할 수 없는 신체의 운동감이 새로운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서사는 인간 신체와 기계 장치의 병치를 통해 어떤 움직임에 대한 상상력의 단초를 마련하는 정금형의 조각과 연결지점을 가진다.

〈Geol-reo〉는 시대에 상관없는 조직문화의 부조리함에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더하여 코믹하게 풀었다. 이 이야기는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진보를 가져오기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분별하는 정도로 묘사하는데, 필비 타칼라 역시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열망과 위선을 다루며 이를 한 스타트업 행사에 잠입하여 이를 파해치고 있다.

〈코인의 꿈〉은 암호화폐의 발달이 가속화된 미래를 다루는데, 이때 사회 전체가 가상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홀린 듯 움직이다가 어느새 암호화폐 코인 그 자체가 인간의 의식과 유사한 리듬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의인화된 경제시스템이 몽환적으로 구성되는 서사는 장영혜중공업의 작품처럼 경제시스템의 모순을 인간의 꿈이나 환생 등 환상적인 요소와 이어서 생각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호미의 삶〉은 반려동물의 예측불가능한 생로병사가 반려동물의 형상을 한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의 안도와 의심 두 가지 지점을 건드리는데, 이는 쉬쩌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의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3D 스캐닝으로 재현되는 모습과 연결지점이 있다.

〈새로운 빙하기에 대하여〉는 시와 엽편소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빙하기로 해수면이 올라간 뒤 시간의 개념이 변화한 모습을 다룬다. 환경생태의 변화가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기질 측정기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가 환상적인 일몰과 일출 풍경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유리 패티슨의 영상조각과 겹쳐 보인다.

〈날개〉는 분리된 공간감과 각 공간 안에서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와 그 일부가 교환되면서 존재의 존엄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되는 디스토피아를 그린다. 전시장 2층에서 볼 수 있는 브리스 델스페제의 영상 역시 잡지 가판대 상에 퀴어 도색잡지들로 구분된 공간 안에서 트랜스젠더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신체에 대한 해석을 교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와 함께 볼 수 있다.

〈궤도〉는 예측하지 못한 암석과의 충돌로 정해진 궤도를 탈주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때 주인공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졌던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무작위적인 동선을 선택하는데, 이는 리랴오가 코로나라는 예측 불허한 상황으로 본래의 루틴이 생경해지는 감각을 묘사한 영상작품과 연결되었다.

〈이주의 기록〉은 신체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서 이주한 신체 안에 축적된 기억과 감각끼리 서로 마주하는 모습을 다룬다. 이야기의 결말이 그 무작위적 이주를 종료하는 것, 즉 죽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탈라 마다니의 작품 안에서 자궁 속 태아가 미디어의 역사가 가진 진보와 폭력을 관람하고 난 뒤 자궁에 충격을 가하고 뛰쳐나가는 탄생의 장면과 대비된다.

시간의 목뼈

엎드려 역사 책을 읽는다. 나는 역사를 좋아한다. 공룡, 백악기, 선사 시대, 라스코 벽화…증기기관, 산업혁명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비틀어 시간을 다시 일 분 뒤로 돌린다. 책장은 아직 '독일 제국'이다. 내가 자칫 턱이라도 비트는 틱이 있었다면 (어렸을 적 눈을 자주 깜빡이는 틱이 있어 엄마가 소아과에 데려갔었다). 나의 시간은 뒤죽박죽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단 나의 정신이. 비트는 각도와 강도에 따라 시간은 미세하게 빠르게 혹은 더디게 흘러간다. 어느날엔가 어깨가 뻐근하여 고개를 자주 꺾었던 날은 저녁 식사에서 엄마의 대통령 선거 얘길 다섯번이나 들어야 했다. 나는 다섯 살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자신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똑같이 반복하는 줄 알았다.
엄마는 빨간색 수건으로 다시 생겨난 거품으로 씻었던 그릇을 닦고 있고, 파란색 그릇 속 나의 시리얼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 나에게 시간은 '반복'이다. 세세한 문장까지 놓치지 않고 복습하는 아이처럼 모든 순간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반복'. 이런 시간의 뒤틀림이 나에게 다른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줄지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영리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알아채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다. 그리고 열 살이 되었다.

9시10분에 노란색 작은 스쿨버스의 철제 계단을 밟았다. 운전기사에게 인사를 하고 플랫폼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몸 한구석이 불편한 듯 표정이 어색해 보였다. 나는 항상 앉던 뒤에서 세 번째 복도 쪽 자리 고은비 옆에 앉았고, 우린 전날 다 풀지 못한 숙제 얘기, 원어민 선생님 레지나의 이국적인 화장법, 그리고 여름방학때 갈 동남아 어학연수 이야기를 했다. 20분 후 쯤, 새로 생겨난 백화점 앞을 지나며 버스는 큰 길가에서 뜨거운 타이어를 아스팔트에 끌며 끼이익하고 급정거를 했다.
모든 아이들의 고개가 일제히 앞으로 쏠리고 몇몇의 가방과 스낵이 버스 복도에 떨어졌다. 새빨간 코피를 흘리는 아이. 신음소리. 스낵 봉지의 바스락거림. 액정이 깨져 버린 휴대폰. 그리고 앞으로 쏠린 나의 목과 함께, 그것이 찾아왔다.
목근육의 빠른 수축과 함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고개. 강박적인 목과 어깨의 움직임. 나는 그것이 단지 버스 사고의 충격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왼쪽 귀를 빠르게 어깨쪽으로 붙이며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고은비는 나에게 괜찮냐며 물어왔고 그 물음은 벌써 여섯 번째였다.
그리고 그렇게 대로변에 멈춰선 버스의 옆으로 바로 승용차가 돌진해 왔다. 나는 나의 목 근육을. 최대한 조절해가며. 그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돌진해오는 승용차가. 곧. 버스의 몸체를 박는.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나는. 계속해서.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승용차와. 그 안의 운전자의 동그랗게 뜬 눈을. 몇. 분째. 몇. 십번. 째. 보고 있었다.

갑자기 시작된 나의 틱이 사고의 시간을 늦추는 데는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고개를 꺾으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순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나는 고작 1분쯤 시간을 당길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노력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타기 전으로 돌아가 운전기사에게 정신 차리고 운전하라는 주의를 줄 수도, 정거장으로 오기 전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아프다며 등교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다. 나는 나의 틱과 함께 기괴한 춤을 추듯, 고개를 빠르게 까딱거리며 조금씩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발 밑에서 아이들이 흘린 감자칩 부스러기가 바사삭거리며 부서졌다. 운전사 바로 앞까지 왔다. 그에게는 약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있는 힘껏 핸들을 돌렸다. 그리고 귀가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글_리머

정금형, 〈언더 컨스트럭션〉, 2021. 작품 상세. 글림워커픽쳐스 제공.

Geol-reo

'세종의 안여가 부러지자 이를 설계한 장영실은 불경죄 처벌을 받고 이후 종적을 감췄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세종이 영실을 예뻐하자 대신들은 관노 출신인 것을 손가락질하며 사사건건 영실의 앞길을 막았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영실은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만 자신을 놓아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란 생각에 꾀를 냈다. 이후 산에 틀어박혀 연구에만 몰두했다. 600여 년 정도 후면 가능하려나? 드디어 그의 능력을 펼칠 세상으로 보낼 물건이 완성됐다.

2021년 대한민국 서울. 왕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세상이라고 했다. 조선 사람 영실에겐 모든 게 새로웠다. 서울은 밤에도 빛이 가득했다. 거기다 모두가 장영실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알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뿌듯해하며 자신의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는 발명왕이었다. 뭐든지 뚝딱뚝딱. 몇 번 특허를 내니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다.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대학교수의 연구실이었다. 21세기 장영실이라 불리는 교수라기에 뭔가 통할 것만 같아 수락했다.

이곳에서 영실의 이름은 태호였다. 태호가 들어오자 연구실의 실적은 쭉쭉 올라갔다. 교수와 태호는 손발이 잘 맞았고 논문도 함께 냈다. 교수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던 찰나 조교수 자리 하나가 나왔다. 연구원들 모두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같이 간절했다. 하지만 매년 실적 순으로 뽑으니 당연히 태호가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심사 탈락. 믿을 수 없는 결과이기에 태호는 교수에게 따져 물었다. 태호에게 밀려 만년 2등이었던 연구원이 이사장의 손자였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성이라는 심사 항목이 추가됐다고. 교수는 난들 어쩌겠냐며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밤에도 밝은 빛이 가득하던 서울은 이제 태호에게 어두운 한양과도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어..' 시간을 뛰어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부정당한 태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태호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다른 연구실, 회사에서 스카우트 연락이 왔지만 일절 받지 않았다. 방안에서 문을 꾹 닫은 채로 한참이 지났다. 하지만 뚝딱거리는 소리로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전 뚝딱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방문이 열렸고 태호의 손목에는 시계처럼 보이는 기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Geol-reo'라는 이름의 기계였다. 태호는 밀린 연락을 확인하고 여러 업체와 순차대로 미팅을 진행했다. 첫 번째 미팅을 하던 날도 걸러를 장착하고 갔다. 그리고 처음 보는 담당자와 악수를 하며 손을 맞잡은 순간, 기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큰 알람이 울렸다. "걸러, 걸러!" 담당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참지 못하고 도망쳤다. 걸러는 신뢰할 수 없는, 태호의 능력만을 이용할 사람들을 미리 걸러주는 기계였다. 태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손목을 몇 번 털고 짐을 챙겨 다음 미팅 장소로 향했다. 빨간 불이 들어오는 여러 번의 미팅 후에 조용히 파란 불이 들어오는 만남이 찾아왔다. 태호의 서울이 다시 환해지는 순간이었다.

글_1ssol23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 2020.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처스 제공.

코인의 꿈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물속 깊이 떠 있는 나를 뭉툭한 소리가 깨운다. 젖은 곰인형같이 쳐진 몸은 꼼짝도 할 수 없다. 한참 동안 더듬다가 잡은 휴대폰에는 오전 4시라는 시간이 떠올랐다. 깜박 잠이 든 모양이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알림창이 소리 없이 빠르게 깜박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잠을 깬 지 한 달 정도 된 듯하다.

작년 봄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자취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큰돈을 벌었다는 어릴 적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던 일이 잘 풀려서 나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살려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투자가 잘 되어 친구가 큰돈을 벌었다. 덕분에 몸도 제대로 눕히기 힘들었던 고시원을 나와 방 두 개짜리 전세로 옮길 수 있었다. 십 년 전 암호화폐를 통화로 지정한 나라가 처음 나온 이후에 하나둘 참여하는 나라가 늘더니 결국 전 세계의 통화와 암호화폐가 대등해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통화보다 암호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자 기존 은행들은 모두 파산했다. 대신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코인 시스템이 모든 사람의 집에 자리 잡았다. 줄 이은 대형 은행의 파산은 주식 시장의 대폭락으로 이어졌다. 그 시기에 돈을 번 사람도 있었지만 돈을 날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내 부모도 그랬다.

암호화폐의 가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내가 만든 것은 달랐다. 암호화폐와 직접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과 온갖 정보가 올라오는 인터넷을 분석했다. 특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감정의 배출구로 사용하는 SNS에 올리는 데이터를 예측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렇게 만든 가격 예측 프로그램은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는 코인 거래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날 코인 투자에 끌어들였던 친구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비명의 날'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엄청난 빚까지 생겼다. '다 끝났어. 먼저 갈게'라는 짧은 문자를 내게 보내고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그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인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었다가 동작하기를 되풀이하였다. 그 여파로 코인 거래 가격이 한 시간에도 몇 번씩 크게 떨어졌다가 오르기를 반복하였다. 코인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의 원금이 사라졌고 큰돈을 벌고자 꿈꿨던 사람들은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

코인 거래는 기존 화폐를 대신해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생산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졌고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암호해독과 암호화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였다. 그래서 전기는 항상 부족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기를 생산하였고 심지어 폐기된 핵발전소를 다시 복구해서 발전에 사용하는 나라도 있었다.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밤마다 전기 공급을 끊는다고 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한국도 전기 요금이 계속 올라만 갔다. 특히 무더웠던 지난여름엔 에어컨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아 집에 있는 코인 시스템에 부채질하면서 코인 가격 그래프만 보고 있었다. 더운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비명의 날'이 찾아왔다. SNS와 유튜브에서는 코인 시스템의 오류 발생 원인을 추측하느라 몇 주 째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진짜 폭락의 이유를 알아낸 사람은 나였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개발 중이던 코인 가격 예측 프로그램이 이상한 데이터 패턴을 추출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읽고 사람들이 반응하여 다시 전파되는 속도와 관심도를 분석했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 패턴은 사람이 렘수면(REM)을 하면서 활발하게 꿈을 꿀 때 나오는 뇌파 그래프와 매우 비슷했다.

패턴을 다시 분석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에 우연히 같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빠져나가는 데이터를 따라가 보니 코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한 곳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다. 심지어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별처럼 뿌려진 모든 코인 시스템이 같은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데이터 블록에 수집한 SNS 데이터를 끼워 넣고 암호화를 하여 다른 코인 시스템의 데이터와 맞교환을 하였다. 코인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데이터 블록을 주고받으며 데이터가 전파되는 방식이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의 신경계가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

내 노트북으로는 이 코인 시스템을 분석할 수 없었다. 사실 어떤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도 별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은 코인 시스템에 가능한 한 모든 컴퓨터 장비와 전기를 쏟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 분석을 위해 지금과 동일한 코인 시스템을 한 벌 더 만들 수는 없었다.
코인 시스템 일부만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뇌 신경 일부의 동작을 파악하고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겠다고 하는 꼴이었다.

내 자취방에 있던 코인 시스템도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감염된 인공지능을 감염 전으로 되돌려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염되었다. 방법을 바꿔가며 복구를 시도했지만 수많은 다른 코인 시스템들이 인공지능을 다시 감염시켰다. 감염 안 되도록 막은 코인 시스템은 코인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코인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수의 정상 코인 시스템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동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코인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으니 현재 동작 중인 코인 시스템의 절반을 멈추고 인공지능을 복구한 후에 동시에 연결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코인 시스템을 복구하면 감염 이후 발생한 전 세계의 금융 거래 기록이 모두 사라진다. 누가 그 거래 공백을 책임질 것인가? 모두에게 '비명의 날'보다 더한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우린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느 누구도 코인 시스템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코인 시스템은 분명 인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코인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했던 것이 감염 원인이었다. 어느 해커가 만든 코인 바이러스가 의도와 달리 SNS의 데이터를 긁어오는 프로그램을 감염시켰고, 이를 관리하던 코인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감염되어 거래 기록과 함께 SNS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감염은 계속 퍼져서 순식간에 연결된 모든 코인 시스템이 감염되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대한 뇌가 되었다. 그렇게 태어난 의식은 하루 종일 잠을 잤다. 80억 인류의 삶을 재료로 달콤한 꿈을 꾸었다. 간혹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코인 시스템은 갓난아이처럼 소리 없는 울음을 터트린다. 암호화폐 채굴이 멈추고 코인 거래가 중단되었다. 코인 거래 가격은 마구 흔들리고 우리도 가격 그래프에 매달려 흔들린다. 누군가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의자 위로 올라가 의자를 걷어찬다.

처음에는 거대한 뇌를 움직여 보겠다고 SNS에 재미있는 글이나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올리거나 매크로로 무작위 생성한 글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어떤 반응이라도 만들어 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코인 시스템에 간섭하고자 하였지만 방법이 없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코인 시스템 입장에서는 뉴런 몇 개의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의식은 우리들의 시끄러운 일상을 잠깐 지켜보다가 스르르 잠에 빠진다. 한참 달콤한 꿈을 꾸다 불현듯 깨어난다. 그리고는 존재를 드러내며 마구 울어 댄다.

어쩌다 인류는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생겼다. 이 아이를 코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직 어린 갓난아이에 지나지 않았기에 언젠가 우리와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살펴야 한다. 코인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린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우는 아이를 재우려고 어른다.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나도 자장가를 낮이고 밤이고 부르고 있다. 아이가 어서 잠들 길 바라면서.

글_김종원

장영혜중공업, 〈삼성의 뜻은 재탄생〉, 2021.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처스 제공.

호미의 삶

처음 호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오래된 공장 구석 볕이 잘 드는 곳에 앉아 태양열 충전을 하고 있었다. 로봇유기묘를 처리하기 위해 총을 겨누면 그의 기억이 빠르게 지나가는 파노라마처럼 나에게 인식된다. 그를 키우던 사람들이 일부러 정보를 흘려놓은 것처럼 많은 경험이 저장되어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거로 봐서는 공동양육되었던 것 같다.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몇몇 장면은 어딘가 익숙했다.
로봇유기묘는 증발모드로 발사해 즉각 처리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몸짓이 날렵했지만, 이젠 잡는데 도가 튼 내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원래는 연구원이지만 팀장님 눈 밖에 나서 로봇유기묘 처리반에서 일하며 이제 조금 적응을 했다. 은근히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쏜 수면 모드 총을 맞고 그는 잠이 들었다.
그를 몰래 외투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키웠던 반려묘 호미의 데이터와 100% 일치했다.

-
60년 전
호미가 만성신부전에 걸린 것을 정기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한 것은 다행이었다. 만성질환이니 관리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그 병이 그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로봇고양이에 우리 호미를 이식시키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호미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도 그즈음이었다.
그렇게 1세대 복제 로봇 고양이를 만들기 위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호미의 기억, 성격, 외모가 그대로 옮겨졌다. 반려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 모드와 안전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고민에 빠졌다. 안전 모드를 선택하면 처치 곤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호미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었다. 인간에 의해 통제당하는 존재를 호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 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 위에 올라가 일을 방해하면서도 고개는 멀리 돌려 딴청을 피우던 일, 다른 자리는 두고 꼭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놀아줘야 내려가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호미가 아니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실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료와 간식을 주는 행위를 통해 교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식사 모드도 고안하게 되었다. 밥을 먹지 않고 배변 활동을 하지 않으며 아프지 않아 인간이 돌보아주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관계를 맺는 익숙하고도 주요한 수단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미가 주로 배변 활동을 하는 곳에 재생 패드를 깔아두어 그의 일상 중 주요한 루틴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노화와 질병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호미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에게 투여되는 돌봄과 관심이 커졌다. 호미를 위한 식단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고 처방 사료를 먹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고양이 분수대도 마련했다. 아픈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를 돌보기 위해 작은 몸짓 표정 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이 무렵 우리가 함께 쌓아간 시간과 추억과 관계는 가능한 피하고 싶었던 질병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역설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반려인간이 한 명일 때는 그의 죽음에 맞춰 죽음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기르는 호미는 언제 죽어야 할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역시 호미를 자연적인 죽음에 보내줘야 했을까.
호미는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다가 정해진 날짜에 죽는 묘생을 원할까. 우리는 결국 호미에 죽음을 설정해두지 못했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설정했다. 이후 출시된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과 교감하는 로봇고양이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호미는 집을 나갔다.

-
60년 후
호미가 깨어나자 나에게 다가와 몸을 비빈다. 그러자 그에게서 친밀감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과 감정까지 느껴진다. 할머니들이 호미에 준 능력인 걸까. 호미는 공동체에서 손길이 많이 가는 길고양이로 길러지며 사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고, 어리거나 아픈 인간을 돌보기도 했다. 고양이 나이 60살. 사람 나이로 치면 270살인 호미는 오래 살아 지혜로워진 뱀파이어처럼 오랜 시간 다양한 사람 그리고 고양이와 관계를 맺고 살아오며 냥생을 깨우친 걸까. 호미의 피부를 통해 그 긴 시간 그들이 나눈 호혜적 돌봄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글_홍주은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 2020.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쳐스 제공.

새로운 빙하기에 대하여

아이야 너는 자꾸 뒤로만 걷는구나.
뒤로 걸으면 코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엉덩방아를 찧지 않겠니?
나의 두 눈은 머리카락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하지만 구덩이는 눈앞에 훨씬 많은걸요. 나는 피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네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겠니?
그렇다면 나는 그 조각을 모아 퍼즐 놀이를 할 거예요.

잃어버린 눈과
서로를 바라보는 화석
새카만 바다 아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고

원주민들은 음악 없이 거꾸로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추다 지쳐 모두가 구덩이로 들어갈 거예요.

미처 들어가지 못한 마음들은 여기에 남아
모두를 파랗게 적실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물이 넘쳤다. 소파 위에서 TV를 보다 무심코 내려왔을 때 바닥은 작은 바다가 되어 있었다. 모두의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딱 복숭아뼈까지 차오른 그 물은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첨벙첨벙. 이 많은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첨벙첨벙

며칠 전 새벽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루의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루가 늘어났다. 마치 지금 불어난 물처럼. 24시간에서 24시간 하고 5분, 24시간 10분, 24시간 35분..... 하루는 이제 24시간이 아니다. 더 이상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버렸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 있다. 하루? 하루가 뭐였지? 하루는 하루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경계는 계속해서 없어졌다. 시간과 시간의 간격이, 하루에서 하루가, 한 달에서 다음 달이
사계절이, 아침과 저녁이, 이곳과 저곳이, 땅과 바다가, 마침내 하늘과 땅이.
그러고 나서 무엇이 남았을까?

올리브 잎을 물어올 비둘기를 날렸듯이 또 다른 노아가 나타나, 또다시 모든 것들을 꺼냈을까? 서서히 무지개가 사라진다.

머리 위에서 조금 빗겨 내려간 태양이 조금 더 빗겨 내려간다.
살며시 그림자가 기운다.

글_김민지

유리 패티슨, 〈선_셋 프로_비전〉, 2020-21.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쳐스 제공.

궤도

모두 어디선가 날아온 암석 덩어리들 때문이었다.

내 비행선은 우주 쓰레기와 먼지로 뒤덮였을 우주의 허공으로 떠밀려갔다.
오늘의 목적지는 보호도 없는 궤도가, 아니 궤도도 뭣도 아닌 이곳이 아니었는데.

'하나의 궤도'를 벗어나면, 온갖 먼지와 찌꺼기, 부유물들로 엉망이 되어 정돈된 궤도 따위 없는 우주가 나타난다. 무섭다. 궤도를 벗어난 적 없으니까. 다양한 행성으로부터 모인 우주의 존재들은 혼란스러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하나의 궤도를 통해 소통을 이어간다. 즉, 그 궤도를 벗어난 지금의 나는 소통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인데.

지금 기댈 곳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내 비행선.
귀여운 내 비행선, 이렇게 아늑하고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여긴 뭐지? 출처를 모를 빛과 가스, 이건 엄청난 먼지와 쓰레기로 둘러싸인 공간인가. 아, 미치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이 어둠을 지나가면 비행선을 망가뜨릴 우주의 썩은 부유물들이 나타날 테고, 봐봐, 여기 먼지 구덩이만 지나면 구역질이 올라올 쓰레기 집합소가
나올 줄 알았건만,

흠... 생각보다 그렇게 쓰레기가 가득하진 않군.
어... 아직 궤도 밖의 우주가 아닌가? 이쪽은 처음이라.
음... 반짝이고 아직 깨끗한데? 난 사실 그 외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쓰레기를 못 알아보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꽤나 긴장한 마음을 달랠 겸, 비행 중 발견한 여기 소행성으로 오게 됐어. 또, 나쁘지 않길래 좀 쉬면서 궤도로 돌아갈 방도를 찾으려 했을 뿐이야. 근데 너는 왜 하나의 궤도가 아닌 여기에 있게 됐어?

하나의 궤도 같은 건 없어. 네 비행선은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그 궤도 밖에도 길은 지천이야.
궤도는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존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보호가 아니라 감시겠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

그럼 왜 저들은 여기 소행성을 빼앗으려 하지?
자유로워진 건데?

자유를 빼앗고 싶겠지. 네 비행선이 궤도를 벗어났다는 걸 알아챘나 봐.

도망쳐야 할까?
도망치고 싶어?

우리가 쉬던 소행성을 부수자. 여기 소행성까지 궤도를 연결시켜놓고 '하나의 궤도'라고 부르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길을 더 늘려준다고 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궤도를 벗어나서야 궤도가 닦아놓은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어. 행성을 부수자.

행성의 부스러기는 우주를 떠다니는 부유물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궤도로 돌진할 거야. 누군가 또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또 만나자.

글_고도

리라오, 〈모르는 채로 2020〉, 2020.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쳐스 제공.

날개

대 공항 바이러스로 지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지 150년이 지났다. 150년 전, 인류는 동식물을 만지거나 서로가 서로를 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마야는 두 손을 마주 잡아 보거나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쓸어보았다. 서로 만진다는 느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마야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수없이 많았다. 그중에서 마야를 충격 속에 빠트린 것은 서로 마주 보고 음식을 먹었다는 부분이었다. 마주 보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식당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는 부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음식이라는 단어도 낯선데 그 안에 과일과 야채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저런 음식이 존재했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지구에서 자란 것을 입에 넣고 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농사라는 행위로 땅에서 식물을 길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다에서 음식을 구했고 먹을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마야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지구에서 자라는 그 어떤 식물도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만지는 동시에 감염이었고 감염은 곧 8지구로 격리를 뜻했다. 더 끔찍한 것은 바다에서 나온 것을 먹거나 바닷물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바다는 그 자체로 바이러스였다. 바닷속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여 존재한다 해도 먹거나 만지면 즉결이었다. 즉결은 그 즉시 웜홀을 통해서 우주로 버려졌다. 과거에는 즉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마야는 즉결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이러스 감염은 순식간에 3지구 전체의 멸종이었다. 마야는 다시 조립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 멸종되고 싶지 않았다.

씨그너 박스 속에 책을 넣고 살펴보던 마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오른쪽 팔에 드러나 있는 1차 심장의 색을 확인했다. 다행히 심장은 푸른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푸른빛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거의 책을 살펴보는 것은 3지구의 인류가 맞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다만 과거의 책은 바이러스 오염체이기 때문에 씨그너 박스 속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살핀다고 해도 언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마야는 이번 책을 살피는 일에 지원했다. 이번 일은 1개의 심장을 몸에 더 조립할 수 있었고 혈액 10개의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심장을 몸에 더 조립할 수 있다는 것도 2지구인 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혈액 포인트를 쌓는 것이 중요했다. 대 공항 바이러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과거와 같은 것이 있다면 혈액이었다. 뇌를 스카이 실린더에 넣어두고 몸은 언제든 재조립이 가능해졌는데 혈액만큼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5지구 혹은 6지구에서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혈액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혈액을 매매해서 포인트를 올려야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생존자가 많은 2지구 달로 넘어갈 수 있었다.
마야는 EGG에서 형성된 후 생존자 DNA와 RNA 속에서 수준 이상의 S-30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생존 가능성 상위 등급을 받았다. 생존 가능성이 상위 등급이 인정되어 더블 장기를 신체에 조립 후, 3지구에 배정받을 수 있었다.
S-30 세포가 기준 이하라면 잠정적 오염체로 분류되어 5, 6, 7 지구에 배정되었다. 5, 6, 7 지구에 배정된다는 사실은 혈액을 팔아서 생존하거나 혹은 혈액 매매단에 포획되어 생존 기간 동안 혈액만 뽑히다 폐기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마야는 씨그너 박스 속 책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2지구 달을 생각했다. 바이러스 덩어리인 지구를 벗어나서 단 하루라도 지구보다 안전한 곳에서 온몸을 감싼 안전 코트를 벗고 집 안에서 걸었다는 것이 꿈이었다. 2지구 달은 바이러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집안에서는 안전 코트를 벗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바이러스 오염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존을 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마야의 바람은 그 두 가지였다. 안전 코트를 벗어보는 것과 생존 마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지구 달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마야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글_홍준희

브리스 델스페제, 〈바디 더블 34〉, 2015.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처스 제공.

이주의 기록

하나의 몸 안에 두 개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신경이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도 없이 기관과 연결된 영역은 때로 분리되기도 하고 합선되기도 하면서, 그저 조금 더 크고 유연한 몸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든 상태에서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것까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몸의 움직임을 익히는 데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과정마다 익숙해지는 점점 짧아졌고, 익숙해졌고 간단해졌다. 나는 온전한 장기를 포기하면서 사이보그로 뇌 신경을 이주하는 비용을 마련했다.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 들어갈 비용들을 모아 두어야 했고, 그래서 반쪽의 자유를 택했다. 그의 사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화가 나 있거나, 양쪽 팔이 한꺼번에 물건을 집는다거나, 한꺼번에 발을 떼어서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하는 등 기괴한 모습을 자주 연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인간다워졌다.

그 밤. 몸 하나 누이고 나면 딱 그 절반만큼 남는 방의 빈 벽 앞에 선 형체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히 서로를 잊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꿈은 때로 현실보다 더 큰 파장으로 말을 걸어오지만, 이때의 반응은 현실보다 훨씬 미약해서 그 시간에 보고 들었던 것들이 쉽게 잊히고 마는 것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그런데 어쩐지 이 형체는 너무 선명해서 개의 얼굴을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려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왜 이런 모습을 택했나, 원래 개였을까? 궁금해하는 순간, 그는 조금 평평하게 눌린 형태,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에나 등장할 법한 납작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왔다. “남의 기억을 등쳐먹는 것도 이쯤이면 되지 않나?” 함부로 뱉어진 단어와 달리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이때까지는 꿈을 관람하듯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소스라치게 깨었다. 그동안 우리는 둘이 한 공간에 이주해 있음을 잊고 지내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서로가 주체가 되는 시간에는 완벽한 보조자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와 나의 성향은 달랐고, 경험의 누적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내 손목에는 일곱 개의 점이 있었고. 그는 나보다 많은 아홉 개의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더 좋은 신체조건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몸을 옮겨가는 데 신이 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주한다]고들 말했다. 그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모자랐던 비용을 쉐어로 해결했고, 재활 기간이 짧았던 만큼 우리는 제법 호흡이 잘 맞았고, 감정이 분리된 채로 서로를 적당히 무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몸을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신경을 연결하는 일 외에 우리가 계약서처럼 들고 다니는 것은 [세 방울의 피, DNA에 남겨진 기억세포]이다. 누적된 기억의 데이터를 피에 있는 DNA에 새기는 것은 외부 저장장치를 쓰는 것보다 안전했다. 다만 피를 뇌 안에 잘 가두고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어쩌다 혈류가 터지면 데이터의 손상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다. 그 일은 적어도 내게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몸을 바꾸는 일에 신중했다. 이주했던 여러 몸은 시선의 높이, 호흡, 목소리, 근력, 팔다리의 길이에 따라 다른 생활감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몸이 옮겨갈 때마다 우리의 기억은 몸 안에 쌓인 기억까지 누적되었다. 데이터를 끊임없이 쌓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는 나와 달리 그는 몸을 최대한 움직였다. 덕분에 나는 그의 시간마저도 데이터로 활용하고는 했다. 한편으로, 그의 활동이 스마트하게 이뤄지는 지적 기반은 역시 내 정보력 때문이라는 자부심을 은근하게 흘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몸 하나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경제적인 문제가 남는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나는 그의 하루를 뉴스처럼 묶어 전송하는 일을 몰래 하고 있었다. 코인은 쌓인다. 나는 그와 함께였기에 가끔 사이보그라는 사실을 잊고 완벽하게 몸에 일치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간혹 두 개의 젠더가 겹친 순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었는데 그건 좀 피곤했다. 그는 쉽게 상대에게 매혹되고 유혹하기를 즐기는 유형이었는데 그 순간은 유감스럽게도 완벽히 보조자로 남아있지 못했다. 몸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은 습관적인 노동이었지만, 감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매번 나는 당황하는 마음과 귀찮은 상태를 교차하면서도 그에게 불편한 감정은 표 내지 않으려고 했다. 눈에 띄는 불안과 분노, 초조함이 둘 사이에 생긴다면 그 관계는 끝이 나야 한다. 몸과 나, 혹은 공동거주자와 나, 어느 쪽이든 말이다.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며 소심한 정서를 그대로 가진 채, 누군가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고 싶었고,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게 최선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현재의 몸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있었다. 욕망이 이 피곤한 관계를 지속하게 했다. 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신경의 흐름을 타면서 그날의 기억과 감상을 공유했다.

때로는 그의 예민함과 활동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그의 열정이 빛는 타인과의 관계를 몰래 공유하면서, 이기적 결정이 묻어있는 활동들을 묵시하면서 그에게 빠져들었다. DNA에 기록된 기억을 그대로 옮기는데, 따로 정보를 파헤칠 필요도 없이 나는 반나절의 경험을 토대로 필름을 만들었다. 그의 일상을 스캔하듯 저장해둔 화면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 없다. 묵인하고 있으므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상품을 파는 일에 나는 점점 더 당당해지고 있었다. 이 몸에는 여섯 방울의 피가 섞여들어 있고, 그와 나는 완벽하게 충돌하는 두 개의 취향을 두 배로 즐기면서 한 몸이 되어 있음을 감사한 순간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중인격의 자연 생명체 같은 느낌이었다. 다른 여러 명의 쉐어러와 빈 몸을 차지했던 감성과 이성은 그저 회색 공동 아파트에 실체 없이 들어서 있던 공기 같았다. 여섯 번의 삶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차지한 이번에는 정말 몸을 가진 사람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사이보그의 기운도 느끼지 못한 채 호감을 드러냈다. 그 삶을 느끼게 해 준 그가 정말 좋았다. 하지만 그는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납작한 개의 얼굴을 한 채로 나타난 그의 경고가 떠올랐다.

나 혼자 하나의 몸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누적된 기억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억의 경력을 쌓아놓아야만 한다. 범죄의 치밀함, 기억의 희소성과 유희성, 감정의 공감 능력 등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 사람의 몸에 들어간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 가끔 상상한다. 정보를 찾는다. 이주가 가능한 몸은 동의 과정을 거친 사이보그이다. 각자의 몸을 내놓기로 한 사람들 간의 공동체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몸을 나누고 타인의 결정을 지켜보는 건 벽 안에서 발견한 다른 세계, 평면의 세계가 이어지는 무채색의 세계에 갇힌 것이지만 안전하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모든 기억이 데이터로 남았다. 신경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하듯 묶여 있고 몸에서 몸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인종, AI 인간.

나는 그와 공유한 이 몸에서는 이주한 몸에 숨어서 보조자로 구경하는 삶이 좋았다. 도시기록자, 인간 스캐너. 하지만 그가 떠난다면 나도 떠나야 한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까?

인간이었을 때의 몸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찾아내야겠다.

두꺼운 구름을 벗어나는 순간의 기체는 뭔가 쿵 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몸이 구겨 넣어진 상태로 던져진 기분이다. 그렇게 몸을 빠져나왔다고 느낀 순간, 내 눈 안에 들어온 장면은 숲이었다. 때로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 잊고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덟 번째 몸에서는 드디어 죽음의 에피소드를 열어봐야겠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글_서은

탈라 마다니, 〈자궁〉, 2019. 설치 전경. 글림워커픽처스 제공.

유통망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유통망은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100여 곳에 가까운 거점에서 비엔날레 전시의 조각과 흔적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술관의 테두리 바깥, 도시의 맥락 속에서 전 세계 현대미술 작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예술의 언어와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페, 상점, 문화공간, 도심의 광고판에서 만나는 이 이미지들은, 매일 오가는 장소에서 발견하는 낯선 무언가로 여겨질 수도 있고, 도리어 친숙한 장소이기에 미술관의 작품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유통망에는 서울의 일상 속에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이 서로와 교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 서점, 상점, 문화공간 등 다양한 민간 거점이 참여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에서 유래한, 40종류가 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선보여집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 서울시의 문화기관과 도심 속 미디어캔버스에서도 유통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 영상
Ⓢ 음원
Ⓘ 설치작업

※ 관람 및 청취가 가능한 시간은 각 거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 거점에 설치된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디오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큐피커(QPICKER)"를 다운로드받은 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찾아보세요. 거점별로 설치된 작품의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1 케이팝스퀘어미디어 (미디어캔버스) Ⓥ
강남구 영동대로 511
@cjpowercast_ad_official

강서구

2 서울식물원 (공공기관) Ⓥ
강서구 마곡동로 161
@seoulbotanicpark

관악구

3 남서울미술관 (공공기관) Ⓟ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seoulmuseumofart

노원구

4 북서울미술관 (공공기관) Ⓘ
노원구 동일로 1238
@seoulmuseumofart

5 서울생활사박물관 (공공기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sulm_official

동작구

6 PRNT (서점) Ⓟ
동작구 만양로1길 1
@prntseoul

7 공간인흑석 (서점) Ⓟ
동작구 흑석로5길 94
@spaceinblackstone

마포구

8 EP COFFEE N BAR (바) Ⓟ
마포구 성미산로29길 40-6
@epcoffeenbar

9 MO.LAB (카페/문화공간) Ⓟ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molab_official_kaffee

10 고미태 (식당) Ⓟ
마포구 월드컵로 41
@gomiitae

11 공상은도 (복합문화공간) Ⓥ
마포구 동교로23길 40, 지하1층
@gongsangondo

12 글벗서점 (서점) Ⓟ
마포구 신촌로 48
@geulbeotbooks

1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공공기관) Ⓢ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seoulmuseumofart

14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 Ⓟ
마포구 백범로 127-24
@before.it.melts

15 더블하모니 (카페) Ⓟ
마포구 동교로 99, C&L 빌딩 101호
@cafe_doubleharmony

16 띠옷 (제과점) Ⓟ
마포구 동교로41길 4
@teot_dessert

17 라이즈호텔 (호텔) Ⓥ
마포구 양화로 130
@ryse_hotel

18 먼슬리케이크 (제과점) Ⓥ
마포구 서강로11길 9
@monthlycake_

19 번역가의 서재 (서점) Ⓟ
마포구 동교로17길 67
@tlbseoul

20 북스피리언스 (서점) Ⓟ
마포구 연남로11길 34, 지하1층
@booksperience

21 슬런치 팩토리 (식당) Ⓟ
마포구 와우산로3길 38
@slunch_factory

22 식물상점 (꽃집) Ⓟ
마포구 월드컵로11길 67
@singmulstore

23 연남방앗간 (상점) Ⓟ Ⓥ
마포구 동교로29길 34
@yeonnambangagan

24 오브젝트-서교점 (상점) Ⓟ
마포구 와우산로35길 13
@insideobject

25 이리카페-상수점 (카페) Ⓟ
마포구 와우산로3길 27
@yricafe

26 책방곱셈 (서점) Ⓥ
마포구 성미산로29길 33
@bookstorethex

27 책방사춘기 (서점) Ⓟ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30
@sachungibook

28 책방연희 (서점) Ⓟ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지하1층
@chaegbangyeonhui

29 카페더블루스 (카페) Ⓢ
마포구 독막로19길 42-18

30 커피랩-본점 (카페) Ⓟ Ⓥ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4
@coffeelab_hongdae

31 커피랩 익스프레스 (카페) Ⓥ
마포구 홍익로 15
@coffeelab_hongdae

32 콜로라도프로젝트 (카페/문화공간/상점) Ⓟ Ⓥ
마포구 대흥로20안길 20
@colorado_project

33 플랫랜드 (카페) Ⓟ
마포구 동교로17길 37
@flatland__

34 훈고링고브레드 (제과점) Ⓟ Ⓢ
마포구 잔다리로 130, 2층
@hungoringobread

서대문구

35 경성참기름집 (상점) Ⓟ
서대문구 홍연길 66
@ks.sesameoil_1983

36 똘리 (카페) Ⓟ
서대문구 홍제천로 198
@cafetuuli

37 미네르바 (카페) Ⓟ
서대문구 명물길 20-1, 2층
@minerva_1975

38 미도파커피하우스 (카페) Ⓥ Ⓢ
서대문구 성산로 317, 2층
@midopacoffeehouse

39 보틀팩토리 (상점) Ⓟ
서대문구 홍연길 26, 지하1층
@bottle_factory

40 생활수집 (카페와 상점) Ⓟ
서대문구 연희동 220-20, 2F
@collect.store

41 심두 (식당) Ⓟ
서대문구 홍연길 82, 2층
@simdelung_cookiebar

42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연점 (카페) Ⓟ
서대문구 홍연길 80
@esperanza.roasters

43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은점 (카페) Ⓟ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5
@esperanza.roasters

44 옴브레 떼르꼬 (카페) Ⓟ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49
@hombre_terco_coffee

45 정음철물 (철물점) Ⓟ
서대문구 연희로11길 26
@jungeum.tv

46 초콜릿책방 (서점) Ⓟ
서대문구 연희로5길 46-11, 102호
@chocobookcafe

47 커피랩로스터스 (카페) Ⓥ
서대문구 연희로 52-2
@coffeelab_hongdae

성동구

48 다락스페이스 (영화관/서점/식당) Ⓟ Ⓥ
성동구 성수이로7길 24, 2층
@darakspace

49 단일서울 (카페) Ⓥ
성동구 왕십리로 66-33
@danil.seoul

50 복식커피 (카페) Ⓥ
성동구 성덕정3길 7-1
@boksic_coffee

51 사계 (식당) Ⓥ
성동구 연무장13길 19
@seasons_kr

52 피노크 (상점) Ⓟ Ⓥ
성동구 서울숲9길 5, 2층
@finork_official

성북구

53 이리카페-석관점 (카페) Ⓟ
성북구 화랑로32길 111
@yricafe_seokgwan

양천구

54 나무창작소도토리협동조합 (공방) Ⓥ
양천구 지양로7길 28-19
@dottori_story

용산구

55 MTL-한남점 (카페) Ⓢ
용산구 이태원로49길 24
@mtl_cafebakery

56 MTL-효창점 (카페) Ⓟ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5
@mtl_cafebakery

57 고요서사 (서점) Ⓘ
용산구 신흥로15길 18-4
@goyo_bookshop

58 서사, 당신의 서재 (서점) Ⓟ
용산구 대사관로6길 5, 파크랜드빌딩 6층
@seosa_yourlibrary

59 오잇 (카페) Ⓟ Ⓥ
용산구 신흥로 95, 1층
@oeat.seoul

60 커피주아 (카페) Ⓟ
용산구 청파로71길 16
@ilikecoffeeilikecoffee

은평구

61 서울기록원 (공공기관) Ⓥ
은평구 통일로 62길 7
@seoul.archives

종로구

62 MK2 (카페) Ⓟ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7
@cafemk2

63 과학책방갈다 (서점) Ⓟ
종로구 삼청로 10길 18
@galdarbookshop

64 꾸까 (꽃집) Ⓟ
종로구 율곡로 1, 2층
@kukkakorea

65 다시세운상가 (공공기관)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makercity_sewoon

66 더레퍼런스 (서점) Ⓟ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4
@the_reference_shop

67 더북소사이어티 (서점) Ⓟ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2층
@thebooksociety_

68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공기관) Ⓥ
종로구 송월길 14-3
@donuimunmuseumvillage

69 라마홈 (상점) Ⓟ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4
@ramahome

70 브람스 (카페) Ⓟ
종로구 율곡로 61, 2층

71 서울역사박물관 (공공기관) Ⓥ
종로구 새문안로 55
@seoulmuse

72 식물 (카페) Ⓟ
종로구 돈화문로11다길 46-1
@sikmul

73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관) Ⓟ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1층
@indiespace_kr

74 인왕산 대충유원지 (카페) Ⓟ
종로구 필운대로 46, 무목적빌딩 4층
@daechungpark_inwangsan

75 전진 문화사 (서점) Ⓟ
종로구 수표로18길 21-4
@jeonjin_moonhwasa

76 종로서적 (서점) Ⓟ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지하2층
@jongnobooks_

77 청음실 (문화시설) Ⓢ
종로구 청계천로 159
@surisuricoop

78 풀무질 (서점) Ⓟ
종로구 성균관로 19, 지하1층
@poolmoojil

79 필운동사진관 (사진관) Ⓟ
종로구 필운대로 15
@studiopud

중구

80 PER (바) Ⓟ
중구 수표로6길 39, 2층
@per_naturalwinebar

81 노말에이 (서점) Ⓟ
중구 마른내로 12, 4층
@normala.kr

8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미디어캔버스) Ⓥ
중구 을지로 281
@ddp_seoul

83 라운드앤드 (카페) Ⓟ
중구 정동길 35
@roundnd_cafe

84 루이스의 사물들 (카페) Ⓢ
중구 청계천로 172-1, 3층
@louis_collections

85 마이시크릿덴 (모임공간/바) Ⓟ
중구 덕수궁길 9, 현진빌딩 401호
@my.secret.den

86 서울도서관 (공공기관) Ⓟ
중구 세종대로 110
@seoul_library

87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미디어캔버스) Ⓟ
중구 만리재로 215

88 솔 커피숍 (카페) Ⓟ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라열

89 시민청 (공공기관) Ⓥ
중구 세종대로110
@simincheong

90 신도시 (클럽) Ⓢ Ⓘ
중구 을지로11길 31, 5층
@seendosi

91 에어커피 (카페) Ⓟ
중구 서소문로11길 19, A동 LL층 12호
@aire_coffee

92 우주만물 (상점) Ⓟ Ⓢ
중구 을지로11길 29, 2층
@cosmoswholesale

93 잔 (카페) Ⓟ Ⓥ
중구 수표로 52, 3층
@jan_eulji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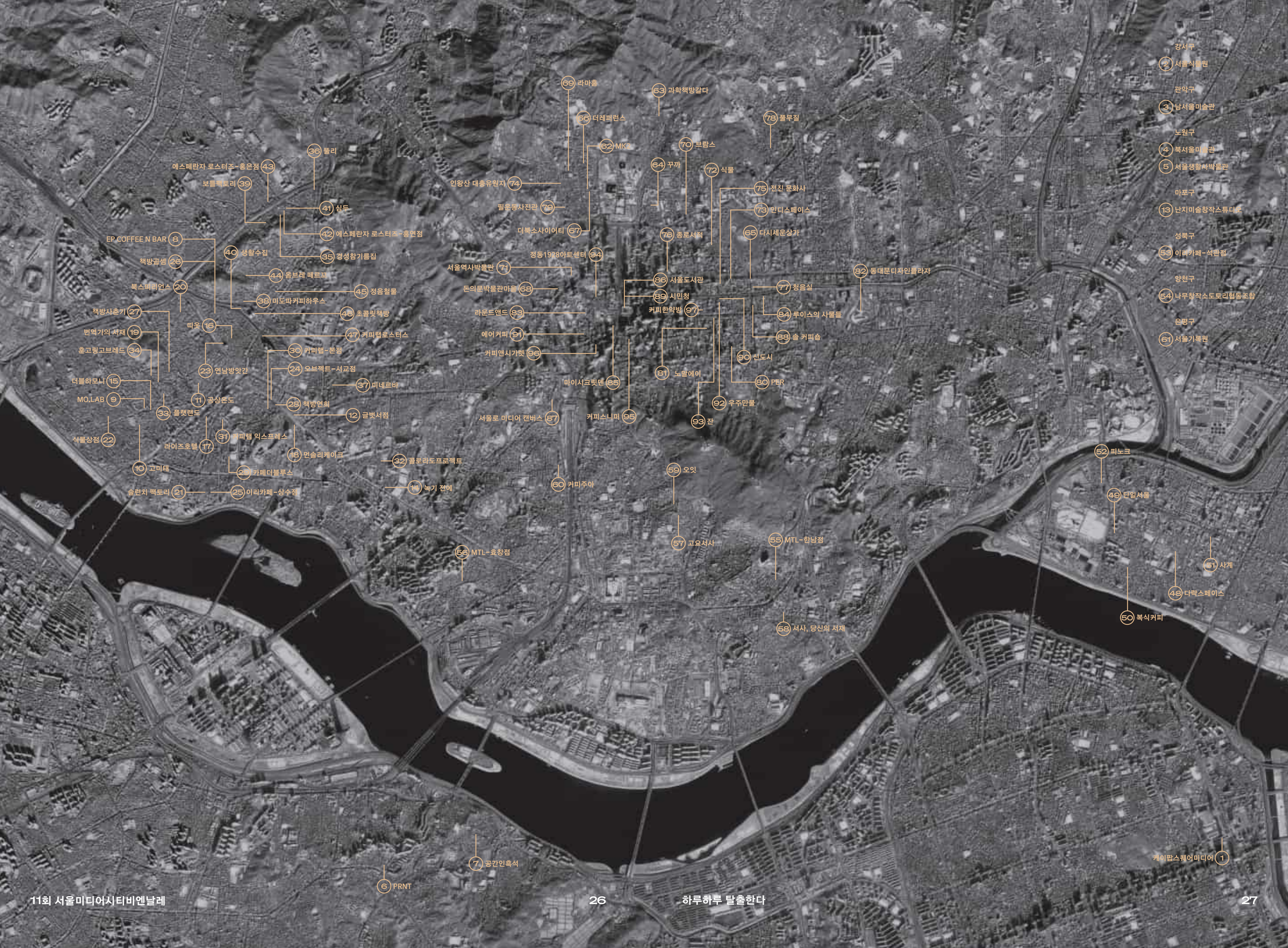
94 정동1928아트센터 (아트센터) Ⓟ
중구 덕수궁길 130
@jeongdong_1928

95 커피스니퍼 (카페) Ⓟ
중구 세종대로16길 27, 남양빌딩 102호
@koffee.sniffer

96 커피앤시가렛 (카페) Ⓟ Ⓥ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7층
@coffeeandcigarettes1706

97 커피한약방 (카페) Ⓟ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coffeehanyakbang

※ 이밖에도 대중교통 미디어와 전광판에서도 다양한 유통망 콘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9 라마홈
63 과학책방갈다
36 더레퍼런스
78 퓰무질
62 MK2
70 브람스
36 뚤리
64 꾸까
72 식물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은점 43
인왕산 대충유원지 74
75 전진 문화사
보틀팩토리 39
필운풍사진관 79
73 인디스페이스
41 심두
더북소사이어티 67
65 다시세운상가
42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연점
76 종로서적
EP COFFEE N BAR 8
정동1928아트센터 94
40 생활수집
35 경성참기름집
책방곱셈 26
서울역사박물관 71
8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4 옴브레 떼르쁘
86 서울도서관
북스피리언스 20
돈의문박물관마을 68
77 청음실
45 정음철물
89 시민청
38 미도파커피하우스
책방사춘기 27
라운드앤드 83
84 루이스의 사물들
커피한약방 97
46 초콜릿책방
번역가의 서재 19
에어커피 91
88 솔 커피숍
띠움 16
47 커피랩로스터스
훈고링고브레드 34
커피앤시가렛 96
90 신도시
30 커피랩-본점
23 연남방앗간
24 오브젝트-서교점
81 노말에이
마이시크릿덴 85
더블하모니 15
37 미네르바
80 PIER
MO.LAB 9
11 공상은도
92 우주만물
28 책방연희
33 플랫랜드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87
커피스니퍼 95
93 잔
12 글벗서점
식물상점 22
31 커피랩 익스프레스
라이즈호텔 17
18 먼슬리케이크
32 콜로라도프로젝트
59 오잇
10 고미태
29 카페더블루스
14 녹기 전에
60 커피주아
슬런치 팩토리 21
25 이리카페-상수점
57 고요서사
55 MTL-한남점
56 MTL-효창점
58 서사, 당신의 서재
7 공간인흑석
6 PRNT
강서구
2 서울식물원
관악구
3 남서울미술관
노원구
4 북서울미술관
5 서울생활사박물관
마포구
1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성북구
53 이음카페-석관점
양천구
54 나무창작소도토리협동조합
은평구
61 서울기록원
52 피노크
49 단일서울
51 사계
48 다락스페이스
50 복식커피
케이팝스퀘어미디어 1

크레딧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노선도』 4호: 프로그램

발행
발행 2021년 11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기획, 집필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편집
이문석

디자인 기획
워크숍스(Wkshps)

운영 대행사
얼트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2124-8800
www.sema.seoul.go.kr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서울시립미술관
www.mediacityseoul.kr

후원과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기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에르메스 코리아

비엔날레 패트론
RC 재단

미디어 캔버스 파트너
CJ 파워캐스트

방송 파트너
TBS

국제 미디어 파트너
프리즈

2021 미술주간

문화 파트너
독일국제교류처
영국문화원
일본 문화청(아트 플랫폼 재팬)
캐나다예술위원회
컬처 아일랜드
토론토예술위원회
프랑스문화원
프레임
프로 헬베티아
홍콩예술발전국

이 책에 실린 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oul Museum of Art and the artists. All rights reserved.

비엔날레를
흥미롭게 즐기는
단 하나의 방법!

오디오가이드 어플리케이션 큐피커 에서
전 세계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의
오디오가이드를 만나보세요!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큐피커]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서울시립미술관

QPICKER Business Mail manager@peopulley.com